**1p**

안녕하십니까? B1D팀 인턴사원 진성호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주간 진행했던 과제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2p**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과제수행결과 및 과제에 대한 의견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웅진에서 쌓은 것과 앞으로 웅진에서의 저의 목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3p**

첫 번째, 과제 수행 결과입니다.

**4p**

먼저 수행한 과제에 대한 AS-IS 및 TO-BE 분석입니다.

현재 SBO는 임직원이 사용한 경비를 직접 회계전표 처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부서에는 경비 등록 및 승인 요청 처리 기능이, 재무부서에는 등록된 경비내역에 대한 승인 및 회계전표 전기 처리 기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실물증빙 비용등록, 결재문서 생성, 결재문서 승인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5p**

처음으로 제작한 화면은 실물증빙 비용등록 화면입니다.

위 화면은 일반부서의 임직원 본인이 사용한 경비에 대해 직접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일반부서의 직원 A씨가 경비를 사용하고, 사용한 경비 내역을 직접 작성합니다. 경비내역 추가 시, 좀 전에 A씨가 입력한 경비 내역이 조회 됩니다. 혹시라도 입력한 경비 내역에 대해 잘못 기입한 내역이 있을 경우 ‘미상신’ 및 ‘결재회수’ 상태에서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화면 Layout은 오른쪽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코어 화면과 유사하게 설계하였으며, 유효성 검사의 에러 메시지의 경우 하단 Progress Bar에 출력되는 코어 화면과 달리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헤더와 디테일의 에러 메시지가 따로 출력되게 구현하였습니다.

**6p**

두 번째는 결재문서 생성 화면입니다.

이 화면 또한 일반부서의 임직원이 사용하며, 선택한 비용전표를 결재 요청하거나 요청된 결재 문서를 회수하는 화면입니다. 직원 A씨는 본인이 등록한 비용 전표를 문서 상태와 날짜에 따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미상신’이나 ‘결재회수’ 상태의 비용 전표를 선택하여 결재 비고란을 입력 후 결재 요청을 하거나, 내역을 변경할 ‘결재요청’ 상태의 결재 문서를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화면 Layout은 오른쪽과 같으며, 결재 요청 시의 문서 상태와 비용 전표를 선택하고, 결재 비고를 입력한 모습을 표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입력 후 버튼 클릭 시 결재 요청을 묻는 메시지가 출력되며, 회수 시에도 마찬 가지로 회수를 할 건지 물어보아 사용자의 실수를 막도록 설계하였습니다.

**7p**

마지막으로 결재문서 승인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앞의 화면들과 달리 재무부서의 직원이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부서 직원 A씨가 요청한 결재 문서를 재무부서의 직원 B씨가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결재 요청 문서를 선택 시 해당 문서에 대한 비용 전표들의 상세내역이 함께 조회됩니다.

직원 B씨는 상세내역을 참고하여 직원 A씨가 요청한 결재 문서에 대해 승인 또는 반려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실제 SBO의 화면이며, 결재요청 중인 문서를 조회 후, 원하는 문서를 선택하여 해당 문서의 비용 전표 상세 내역을 조회한 상황입니다. 내역을 검토하여 오른쪽 하단의 반려 혹은 승인 버튼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8p**

이어서 과제의 결과에 대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p**

우선 과제에 대해 보완해야 할 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스스로 꼼꼼히 체크한다고 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두 가지 사항을 개선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 발생한 에러 부분을 문서화 하여 추후 개발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 구현 시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검토를 완벽히 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개선 사항을 도입하여 앞으로는 놓치는 오류 없이 개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0p**

다음으로 과제를 끝내며 든 생각입니다.

과제를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설계도 및 업무 프로세스 대한 이해입니다. 과제 진행 중 설계도에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애를 먹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후, 같은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계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프로그램의 프로세스를 직접 그려보며 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 즉,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유효성 체크 과정에서 설계된 프로세스 외의 동작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오류를 보며, 설계된 프로세스 외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휴먼 에러에 대비하여 프로그램을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제작할수록 사용자의 입장에서 더욱 생각하게 되어 편의 사항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본 편의 사항들을 문서화하여 앞으로의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과제 시작 전, 저의 목표는 모든 과제를 완료하는 것이었으나 과제 기간 중 목표의 3/4까지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해 아쉬움이 남기도 했지만, 첫 화면을 만드는 데는 약 5일이 걸린 반면, 마지막 화면의 경우 2일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스스로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과제를 하면서 SAP B1 개발이 적성에 맞다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적성 및 성취감과 앞서 말씀 드린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서 빠른 시일 내에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p**

마지막으로 인턴 기간 동안 이루어낸 결과와 앞으로 웅진인으로써 저의 목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2p**

3달 동안 인턴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루어낸 것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내보았습니다.

입사 한 달 차, 교육에 최선을 다해 임하여 ERP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DB SQL 쿼리 개발 능력을 성장 시켰습니다. 또한 처음 접해 본 회계 프로세스에 대한 빠른 이해와 습득을 위해 전산회계 2급 공부를 병행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입사 두 달 차, SAP B1 개발 지식 및 Add-On 개발 기술을 습득하고, 교육 외적으로 추가 코딩하며 능력을 성장시켰습니다.

과제 1주차, 처음 받아본 설계도를 통해 설계도 및 업무 프로세스 이해와 실제 개발에서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앞으로 어떤 자세로 개발에 임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제 2주차, 첫 화면 제작 시간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화면을 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며 짧은 시간 안에 개발 능력을 한 층 더 성장 시켰습니다.

**13p**

끝으로 웅진인으로써 저의 향후 5년간의 로드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인턴 기간 쌓았던 개발 지식 및 능력을 기반으로

1년차까지는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임하며 개발에 도움이 될 자료들을 문서화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회계 및 물류 프로세스의 지식을 갖출 것입니다. 관련 자격증이 요구될 경우 취득할 예정이며, 만약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 임할 것입니다.

2년차에는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실전 경험을 축적할 것이며, 추후 해외 프로젝트 출장을 목표로 자기개발을 할 것입니다.

3년차에는 코로나 완화로 해외 프로젝트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어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국내, 외 프로젝트 경험을 모두 축적할 것입니다.

4년차에는 꾸준한 프로젝트 참여로 프로젝트 팀 내에서 1인분 이상을 해내는 인력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5년차에는 FCM과 SCM 두 분야의 지식 및 개발 가능 능력과 SBO 외적인 부분에 대한 역량도 함께 길러 모든 분야에 투입될 수 있는 개발자로 성장하겠습니다

이 후에는 SMB 사업본부의 각 팀에서 힘쓰고 계시는 임직원 분들께서 밟으신 길을 따라 웅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14**

Q&A

**p15**

끝으로 SAP B1 개발을 ‘업’으로 하여 웅진에 득이 되는 웅진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